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장
허남식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ommittee Inc.
President
Huh Namsik

올해로 8회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부산국제연극제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연극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국제연극제는 2004년 1회를 시작으로 여덟 해를 개최하는 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 축제로, 부산의 자랑스러운 문화 자산으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 모두가 성공적인 연극제 개최를 위해 초기부터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규 전, 집행위원장과 허은 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극제는 'LOVE & HARMONY(사랑, 그리고 하모니)'라는 컨셉으로 예술 작품의 영원한 주제가 되어버린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담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개최됩니다. 가정의 달, 아름다운 봄 5월에 많은 관광객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화려한 연극의 향연을 마음껏 즐겨 주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8회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거듭 성장하여 아시아 최고의 공연예술 축제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8회 부산국제연극제에 오신 여러분을 거듭 환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8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BIPAF)! Let me first thank Festival Director Huh Eun and many others for all your hard work in making this theatrical festival possible.
Since its inauguration in 2004, the BIPAF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last 8 years and has established itself as a unique performing arts festival representing the city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cultural assets that the people of Busan can take great pride in.
This has only been made possible thanks to all the hard work of the former Festival Director Kim Dongkyu, the incumbent Festival Director Huh Eun and the many lovers of performing arts.
Under the theme of 'LOVE & HARMONY,' this year's BIPAF is presenting various touching theatrical works with the familiar theme of love, as well as many side events. I hope that many tourists and citizens will enjoy the wonderful world of the performing arts and create many beautiful memories through the BIPAF at this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I look forward to the BIPAF, in its 8th edition this year, continuing to grow into one of the world-famous theatrical festivals and become the most prestigious performing arts festival in Asia.
Once again,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you all for the 8th BIPAF. I wish you the best of health and happiness. Thank you.

Huh Namsik

봄의 축제는 대국성(對局性)을 통해 삶의 긍정성을 확보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 부산국제연극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가운데서 공연예술이라는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부산국제연극제는 이제 보다 넓은 축제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예술과 우리들 삶의 조화로움을 희망합니다.
제8회 부산국제연극제는 공연예술을 통해서 조화로움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자 하며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음을 알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주로 공연의 형식을 통해서 관객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내용과 주제를 통해서 관객과 함께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외 초청작 7편과 국내 참가작 12편으로 총 19개 작품 52회 공연을 통해 진화하는 축제의 모습을 확인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연극인, 시민 관객들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대표적 봄 축제로서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에 남는 우리들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성장해 온 부산국제연극제의 바탕을 만들어주신 김동규 전 집행위원장의 노고는 이 축제의 역사와 함께 기억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남식 부산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부산의 연극인 여러분, 참가해 주신 국내외 공연예술가 그리고 진정한 축제의 주인공인 시민여러분에게도 넘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e arts enrich our lives in innumerable ways, both obvious and intangible. Festivals are an avenue for connecting with the arts; people are inspired and the positive dynamics of their lives shine through. As the leading festival of the spring season,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BIPAF) strives to create a festival more inclusive, interactive and dynamic each successive year.
Though BIPAF focuses on performing arts, only one of many art forms, the different elements that comprise the world of art do not exist in isolation. The 2011 BIPAF theme is "Love & Harmony." BIPAF embodies love and harmony in theme as much as in execution. By the breadth of activities showcased, efforts to merge performers and patrons, and the dynamism of works presented, BIPAF aims to articulate the maxim that the only way to harmony is through love. This year's line-up includes 7 international and 12 domestic performances to be performed 52 times from May 1st to 10th. However, BIPAF does not end with each performance. Outside of the theater, opportunities have been built into the festival for audiences to stop and take time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this year's theme, "Love & Harmony" as it applies to each individual's life.
Furthermore, BIPAF represents the coming together of different cultures. Busan citizens and artists have this great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in a way that is alive, contemporary and exciting for all involved. BIPAF aims to be accessible to both theater enthusiasts and new fans in the making. We wish for BIPAF to be memorable, not only for the shows, but hope the experience overall will leave a lasting impression.
Embarking on this journey with the 8th BIPAF, I must humbly acknowledge all the efforts, past and present, that make it possible. I truly appreciate Kim Dongkyu, the former festival director of BIPAF, who had made so much progress for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Also, I give thanks to everyone who has supported the festival including Busan mayor, Huh Namsik, festival committee board members, Busan's arts community and all the citizens that continue to make this festival great.

Huh Eun



부산국제연극제집행위원장
허은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ommittee Inc.
Festival Director
Huh Eu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houng Byoung-gug

푸른 바다 반짝이는 화사한 봄날의 부산에서, '2011년 제8회 부산국제연극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우수한 공연으로 이번 연극제를 빛내주실 국내의 연극인 여러분과 축제를 찾아주실 관객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공연의 형식을 떠나 예술 작품의 영원한 주제로 눈을 돌렸습니다. 즉 다양한 사랑의 유형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를 위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사랑, 그리고 조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극제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악과 사랑>, <육망의 조각들> 등 한국과 프랑스·브라질·스페인·체코·일본·중국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오늘부터 10일간 부산 곳곳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5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채로운 공연들이 선사하는 색다른 경험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국제연극제는 많은 관객들이 연극을 마음껏 즐기고 전문가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세계적인 공연 축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부산국제연극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위해 애써 주신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 sincerely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n Busan punctuated with the lovely sunshine and glittering blue sea.

Firstly, I appreciate the performer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who participate and the audiences who are interested in the festival.

Established in 2004, this year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s entering its 8th year. With this year's theme, 'Love & Harmony', BIPAF is committed to showing that a more harmonious world is possible through various types of love.

For ten days, you will see many high-level performances from Korea, France, Brazil, Catalonia(Located in Northeast Spain), the Czech Republic, Japan and China. Of particular import are the opening and closing performances: <L'homme de l'Atlantique> and <fragments du désir> respectively. In May, a beautiful month, BIPAF patrons will have a unique experience through watching these dynamic performances and participating in all that BIPAF has to offer.

Furthermore, I wish for BIPAF to continue being an international festival where members of the theatrical community come together and exchange ideas. I hope you support this exchange by sharing your time, love, interest and enthusiasm.

Once again, I sincerely appreciate the support of the festival from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ommittee.

제8회 부산국제연극제 개최를 축하하며

색색의 봄꽃이 만발한 5월, 우리나라 제일의 항구도시이자 문화도시 부산에서 제8회 부산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매년 싱그러운 꽃향기와 함께 찾아오는 부산국제연극제는 국내외 다양한 공연예술인이 모여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교류의 장인 동시에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세계인의 어울림 마당입니다. 올해 역시 브라질, 스페인, 일본, 중국, 체코, 프랑스 그리고 한국에서 모인 공연예술인들과 함께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국적과 문화를 넘어 어우러지는 한바탕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조화' 라는 이번 콘셉트는 이러한 부산국제연극제의 의미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혼돈을 경험해야 하는 현대인 앞에 분명하게 존재하며 그들의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연극이 그려내는 수많은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목격해왔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역시 연극을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통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8회 부산국제연극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Celebrating the opening of the 8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May is the time when beautiful spring blossoms come to life throughout Korea. Following suite, the city of Busan as a whole begins to shed its win try shell and new life is breathed back into this dynamic cultural center. Key to this annual cultural renewal is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BIPAF) celebrating its 8th installment this year. I applaud the diligence and dedication of festival organizers that makes BIPAF, not only possible, but an ever increasing success each subsequent year. Carried in with the sweet smell of flowers, BIPAF serves as a meeting ground for performers from around the world to interact with the enthusiastic audiences here. 2011 continues the rich tradition of hosting performances as varied in their form and content as much as their geography. These distinguished performances come to BIPAF following appearances at other distinguished international festivals. Works from Brazil, Catalonia(Located in Northeast Spain), Japan, the Czech Republic, France and other parts of Korea will be united by BIPAF's 2011 theme: "Love & Harmony."

We are living in very chaotic times with much uncertainty; only love can make our complicated lives harmonious. Love is a driving force in works of theater as much as in daily life. This year we will witness love in its many interpretations and incarnations through the various works of BIPAF.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8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I wish for BIPAF continued success well into the future with the support from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박계배

Director
of the National Theater
Association of Korea
Park Gyebae



애들레이드 프린지 위원장
그렉 클락
Director & Chief Executive
Adelaide Fringe Inc.
Greg Clarke

2011년 멋진 프로그램으로 문을 여는 부산국제연극제의 개막을 축하합니다! 부산국제연극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의 부산에 방문하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브라질, 체코 그리고 한국에서 19개의 초청 공연예술작품이 '사랑, 그리고 조화'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부산국제연극제는 저에게 큰 놀라움입니다.

지난 2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호주 아들레이드 프린지의 축제위원장과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허니 팟 프로그램 게스트로 참석해 주신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 허은 교수님과 대외협력팀장 Cindy Park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 기회를 통해 두 국가의 특별한 두 축제인 호주의 아들레이드 프린지 축제와 부산국제연극제가 보다 특별한 관계를 쌓아 가기를 기대합니다.

Congratulations on an exciting 2011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program and a grand opening! I am so thrilled and honou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me to South Korea and attend this wonderful festival in Busan.

With over 19 works from countries as diverse as France, Catalonia(Located in Northeast Spain), Japan, China, Brazil, the Czech Republic and Korea linked by a theme of 'Love and Harmony', I know I will certainly be in for some wonderful surprises.

It was such a pleasure hosting Professor Huh and Cindy Park's visit to Adelaide Fringe 2011 as part of our Honey Pot program. I now look forward to attending BIPAF to further strengthen and build on this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unique festivals.

■ 약력

그렉 클락은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의 위원장이자 CEO이다. 애들레이드 프린지는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인기 있는 공연예술 축제이다. 백만 명 이상의 관객이 2010년 애들레이드 프린지에 참여하였으며 호주 남부지역 일대에 3천 5백만 달러 이상의 경제 상승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렉 클락 위원장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적인 문화 예술 아이콘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수석 프로듀서로 맹활약 하였으며 현대 무용, 카바레극, 서커스, 연극 그리고 음악 콘서트를 망라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물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30주년 기념행사와 The Message Sticks 영화제에서 연출한 경험이 있다.

■ Biography

Greg Clarke is Director and Chief Executive of Adelaide Fringe, the largest and most popular arts festival in Australia. Over one million people attended Adelaide Fringe in 2010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conomy of South Australia by generating over 35 million dollars in revenue. From 2001 to 2007, he was Senior Producer at the Sydney Opera House producing the Message Sticks Film Festival, 30th Anniversary of the Sydney Opera House, and programming contemporary dance, cabaret, circus, theater and music concerts in all five theaters.

주한 체코대사로써 체코의 유명극단 Skutr가 한국의 부산에서 최초로 공연을 할 수 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연출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체코 공연예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특별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kutr 역시 체코의 우수 극단 중 하나이며 개인적으로도 Skutr극단이 한국에서 체코 공연예술의 역사적 우수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한국관객들과 만나 좋은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한국과 체코의 문화예술교류는 40년 전 한국의 서울국립극장에서 성공적으로 공연된 체코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극작가 Karel Čapek의 작품 <The Mother>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후 전 체코 대통령이었던 Václav Havel의 연극, <Leaving>이 극단 Archa의 주도로 서울에서 공연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1920년대 중반 Karel Čapek의 작품인 <R.U.R. Rossum's Universal Robots>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공연된 바 있습니다.

체코의 SKUTR극단의 이번 부산 첫 방문이 체코와 한국 그리고 부산의 공연예술 역사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Jsem velmi potěšen, že do Pusanu přijíždí právě české divadlo Skútr, soubor známý svými inovativními přístupy k divadlu. Česko-korejské divadelní kontakty mají dlouhou historii, dovolu mi proto zmínit alespoň tři takovéto historické momenty z česko-korejských divadelních vztahů.

V loňském roce to bylo Odcházení Václava Havla, které v originálním obsazení Divadla Archa zaujalo na sérii představení soulské publikum. Bylo to prvně, kdy takto velký český soubor navštívil Korejskou republiku. Spodobným úspěchem se tady v Korejské republice setkala i Čapkova Matka – zřejmě první divadelní hra českého autora, která byla vybrána na repertoár Korejského národního divadla už před více než čtyřiceti lety, tedy v dobách, kdy oficiální česko(slovensko)-(jiho)korejské vztahy prakticky neexistovaly.

A zmínit je třeba i korejský překlad nejslavnější Čapkovy hry – R.U.R. – který vyšel (a zřejmě se i hrál, byť se o tom dodnes místní historici přou) už v polovině 20. let 20. století.

Doufám, že se jednoho dne o květnových představeních Skútru bude psát spodobnou nostalgickou vzpomínkou.



주한체코대사
야로슬라브 올샤 주니어
Jaroslav Olša, jr.
velvyslanec České republiky
v Korejské republice

공연 일정표

Performance Schedule

BIPAF CONCEPT ■ BIPAF OPEN ■ 참여프로그램 ■ 관객과의 대화 (Q&A Session) ★

구 분	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18:00	20:00 ★						18:00	20:00 ★	19:00
	〈프랑스 France〉 프랭크 시나트라 음악과 사랑 L'homme de l'Atlantique							〈브라질, 프랑스 Brazil, France〉 욕망의 조각들 fragments du désir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		18:00 ★	18:00		18:00	18:00 ★		20:00 ★	20:00	
		〈한국 Korea〉 수동과 두통 Passivity and Headache			〈한국 Korea〉 돌고 돌아가는 길 The Longest Way Around (Winner of Busan Theater Festival)			〈한국 Korea〉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Love Game		
부산 문화회관 소극장		20:00	20:00 ★	09:00	09:00	09:30				14:00
		〈한국 Korea〉 칸타빌레 Cantabile		10분 연극제 〈일반〉 예선 First Round of General Public of "10 Minute Open Plays"		10분 연극제 〈대학〉 예선 First Round of University Student of "10 Minute Open Plays"				워크숍 발표 Workshop Presentation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			14:00	11:00	11:00 14:00	16:00 ★	10:00 16:30			
			〈한국 Korea〉 따용이와 떠나는 환경캠프 Ddiyong, Into the Nature		〈한국 Korea〉 할머니의 낡은 창고 My Grandmother's Old Storage					
경성대 새빛들				19:30 ★	20:00					
				〈체코 Czech〉 유혹 La Petite Mort						
경성대 콘서트홀		18:00 ★	20:00	20:00	16:00 ★			16:00	20:00 ★	
		〈스페인 Catalonia (Located in Northeast Spain)〉 캡스 COPS		〈스페인 Catalonia (Located in Northeast Spain)〉 못말리는 장의사 HUMORTAL				〈일본, 한국 Japan, Korea〉 게와 그녀와 이웃 일본인 A Crab, a Woman and her Japanese Neighbor		
경성대 예노 소극장		19:30	18:00	19:00	20:00 ★	20:00		16:00	16:00 ★	
		20:00	18:30	19:30						
		20:30	19:00	20:00						
		21:00	19:30	20:30						
	〈한국 Korea〉 우리엄마, 정숙이, 차여사 My mom, Jungsuk and Mrs. Cha			〈중국 China〉 상하이 랩소디 A rhapsody of Shanghai Bund			〈한국 Korea〉 어른들을 위한 동화 꿈(夢) Dream			
멀티 미디어 소강당		14:00								
		심포지엄 Symposium								
용천지랄 소극장		20:00	20:00 ★		20:00	20:00 ★		20:00 ★	20:00	
		〈한국 Korea〉 허기진 휴식 Starved Rest			〈한국 Korea〉 들판에서 Brothers			〈한국 Korea〉 자-살+자 Comedy Suicide		
울속도 문화회관							18:00 ★	18:00		
							〈한국 Korea〉 이별의 부산정거장 Goodbye at Busan Station			

※ 〈10분 연극제〉 본선 : 5/7(토) 14:00~18:00 / 롯데백화점(광복점) 아쿠아룸 10층 문화홀

PERFORMANCE BIPAF CONCEPT

부산국제연극제 컨셉(사랑, 그리고 하모니)에
부합하는 초청 작품

The performanc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theme of the 8th Annual BIPAF, "Love & Harmony",
and invited to participate hail
both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프랭크 시나트라 음악과 사랑

L'homme de l'Atlantique

프랑스

Olivier Dubois

5월 1일(일)~2일(월)
일 18:00, 월 20: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0분
15세 이상

France

Olivier Dubois

May 1st (Sun) 18:00
2nd (Mon) 20:00

Main Hall,
Busan Cultural Center
60MIN
Rated PG - 14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전설의 목소리, 위대한 예술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인생을 춤추다!
부유하고 화려해 보이는 현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진 현대인의 각박한 일상과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단비는 다름 아닌 “사랑”!

프랑스 리옹 페스티벌의 포커스 댄스 부분에서 유일하게 기립박수를 받은 작품으로, 무대를 미끄러지듯 춤을 추는 열정적인 배우들의 몸짓, 20세기 중반 프랑스풍의 우아하고 화려한 의상들과 무대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My way>, <Fly me to the moon> 등의 노래가 반복된 일상에 지친 관객들을 지나간 향수에 젖게 할 것이다.

<L'homme de l'Atlantique>는 Culture France(프랑스정부 예술경영지원)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안무가이자 제7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인 <Comedy>의 안무가 나세르 마르탱 고세와 함께 가장 활동적이고 창의력 있는 안무가로 주목받는 “Olivier Dubois”가 그 많은 유명가수나 배우 중 프랭크 시나트라를 “전설의 목소리”로 치켜세우며 그 사람의 일대기를 자신만의 무대언어로 소화해 낸 작품이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2일 (월) 20시 공연 후

안무가 : Olivier Dubois / 보조 : Cyril Accorsi / 음악 : Frank Sinatra / 음향감독 : François Caffenne / 조명 : Patrick Riou
설치 : L'Usine / 의상 : Cédric Debeuf & Olivier Dubois / 기술감독 : Séverine Combes / 기획 : Béatrice Horn
출연 : Marianne Descamps & Olivier Dubois

※ <L'homme de l'Atlantique>는 프랑스 대사관과 프랑스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 초청한 작품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음악과 사랑

L'homme de l'Atlantique

"Fly to the moon"- a sentiment made famous by a man whose voice was able to do just that: transcend the listener to a different state of mind.

Frank Sinatra serves as the inspiration and omniscient third character on stage as "the Voice," a presence come to life in song, in Olivier Dubois's <L'homme de l'Atlantique>

<L'homme de l'Atlantique>'s mise-en-scène effectively brings the audience into the literal realm of a 1950s metropolis among society's elite. However, Dubois supersedes the literal and plays into the surreal nature of nostalgia itself-longing that comes from an idealized version of the past.

Dubois's <L'homme de l'Atlantique> takes 60 minutes and fills it with beauty, love and the joy of experiencing some part of a golden era gone by.

■ Q&A Session : May 2nd (Mon) 20:00 After the performance

Choreography : Olivier Dubois / Assistant : Cyril Accorsi / Music : Frank Sinatra / Sound Director : François Caffenne / Lighting : Patrick Riou / Set-up : L'Usine / Costumes : Cédric Debeuf & Olivier Dubois / Technical Director : Séverine Combes / General Manager : Béatrice Horn / Performer : Marianne Descamps & Olivier Dubois

※ Supported by France Embassy in Korea and INSTITUT FRANCAIS

“Olivier Dubois”와의 인터뷰 내용

Q “프랭크 시나트라” 에 관하여 작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어느 날 갑자기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마치 오랫동안 봐왔던 파트너에게 “아, 나 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프랭크 시나트라” 라는 인물은 참 흥미로워요. 저에겐 즐거움과도 같죠. 제가 열 살인가 열 두살 때 시나트라의 음악을 아버지의 차 안에 누워 들곤 했어요. 그 때의 행복한 감정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힘든 일 속에 파묻혀 살면서 때로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었고, 관객들과도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닌 아름다운 의상과 세련미에서 느껴지는 미국적인 부유함을 통하여 느끼고자 했던 즐거움과 기쁨이 저에겐 곧 “프랭크 시나트라” 이고, <L’homme de l’Atlantique>입니다.

- Philippe Verrière 지

Interview with “Olivier Dubois”

Q What made you work on <L’homme de l’Atlantique> related to Frank Sinatra ?

A It took at least two years that I worked on this and it just happened suddenly, like when one looks at an old partner and says "Hey ! I want to talk about you." Frank Sinatra is pretty intriguing because of his personality and he is linked to the idea of pleasure for me. Since the time that I was 10 or 12, I used to listen to audio-cassettes of Sinatra lying in my father’s car. It’s a pleasant feeling and it remains anchored in the ocean of memory, but it is a part of a special perception of happiness. For some time now I was involved with works that can be tough or demanding, therefore I wanted to touch the theme of pleasure and share it with the audience. I wanted beautiful costumes, sophistication. Not only in terms of having wealth, financial - American opulence which make dreams o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This pleasure, it is Sinatra, <L’homme de l’Atlantique>.

- Text by Philippe Verrière



욕망의 조각들

fragments du désir

브라질, 프랑스

Dos à Deux

5월 8일(일)~10일(화)
일 18:00, 월 20:00
화 19: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85분
19세 이상

Brazil, France

Dos à Deux

May 8th (Sun) 18:00
9th (Mon) 20:00
10th (Tue) 19:00

Main Hall,
Busan Cultural Center
85MIN
Rated PG - 18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2010 프랑스 최대 축제 아비뇽OFF의 성공적인 초연 이후, 아시아 프리미어 공연!
2009년 제6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극단 Dos à Deux의 두 번째 한국 방문!

황홀하고 아름다운 무대연출, 배우들의 명품연기로 탄생한 fragments du désir(욕망의 조각들)는 사랑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동성애나 근친상간이라는 소재를 통해 한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정체성과 욕망,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또한 사랑받고,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타인에게 다가가며, 몸짓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인간의 ‘욕망의 조각들’이 삶의 빈 공간을 충만하게 메워주며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관객들에게 말하고 있다.
2010년 브라질 최고의 공연 수상작으로, 2009년 제6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극단 Dos à Deux가 다시 한국을 찾았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9일 (월) 20시 공연 후

연출 : Artur RIBERO, André CURTI / 무대감독 : Démis BOUSSU / 매니저 : Nathalie REDANT / 음향감독 : Nicolas MAISSE
조명감독 : Blandine LAENNEC
출연 : Artur RIBERO, André CURTI, Maria ADELIA, Matias CHEBEL

욕망의 조각들

fragments du désir

After perfect World Premiere on 2010 Avignon OFF, France's biggest Festival,
Asia Premiere on the 8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Through the complicated tapestry woven from the ties among a father, son, Olga the governess, and Orlando, the predicament comes to light. That predicament is both abstract and familiar. That predicament is one of love, lust, loss and the search to define one's self.

<fragments du désir> is the latest production from the Brazilian artistic team Artur Ribeiro and André Curti. A highly stylized work of physical theater, “dialogue” is delivered through meticulous movement, command of fascinating props, interaction with luscious stage designs and dissolving into enchanting, atmospheric sounds. It is a paradox that takes living nightmares and plays them out in a “waking dream.” Fragments is equal parts beauty, tragedy and mirror to our own desirous pursuits.

<fragments du désir> was the winner of Brazil's TV and newspaper Public Choice Award for best performance in 2010 and the theater company Dos à Deux has performed <Saudade, terres d'eau> as the closing performance of the 6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n 2009.

■ Q&A Session : May 9th (Mon) 20:00 After the performance

Director : Artur RIBERO, André CURTI / General Manager : Nathalie REDANT / Stage Director : Démis BOUSSU / Sound Director : Nicolas MAISSE
Lighting Director : Blandine LAENNEC
Performer : Artur RIBERO, André CURTI, Maria ADELIA, Matias CHEBEL

언론보도 PRESS REVIEWS

From the gestural comes the softness that invites you to the redemption.
 From this which reconciles one with oneself
 신체적 표현을 따라 오는 부드러움은 자아만족에서 오는 구원의 길로 당신을 초대한다.

_ La Montagne

a dense creation, entirely in tenderness,
 from which one does not necessarily leave unscathed.
 Sumptuous!

밀도 있는 구성, 전체적인 부드러움은 아픔을 값지게 만든다.

_ Ouest France

In the absence of dialogue and in spite of a non-linear narration,
 the succession of images, which have a mind blowing beauty,
 and the body language of four characters lead the audience to construct its own story.

대화와 해설도 없지만, 낯을 놓게 만드는 아름다운 이미지의 연속,
 그리고 네 인물의 몸짓언어는 관객들 스스로 내용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끈다.

_ Yves Pérennou - Magazine La Scène – 28th September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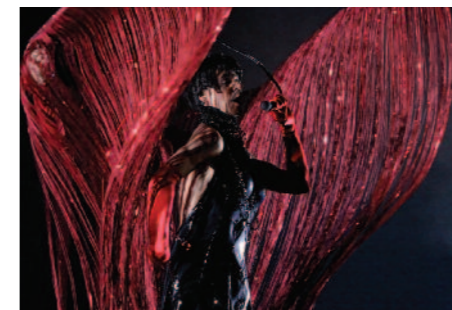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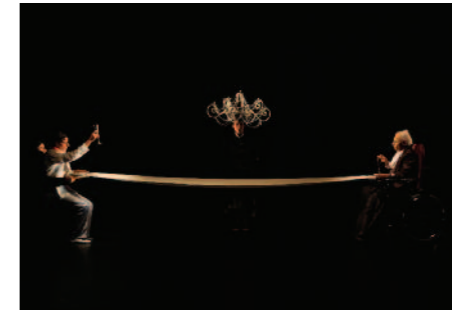
A piece of work of a great originality,
 with an unprecedented sensitivity which leaves the audience stunned and shaken.

놀라운 독창성으로 이루어진 작품,
 관객들이 전율하며 입을 못 다물게 만드는 전무후무한 감수성.

_ Jean Michel Gautier - La Marseillaise – 29th July 2010

It is a feast for the eyes, a solace for the heart, a nectar for the soul.
 보는 눈이 즐겁고, 가슴으로 위로 받으며, 영혼을 위한 달콤한 술과 같은 이 극...

_ Alain Pécoult - La Provence – 21st July 2010



우리엄마, 정숙이, 차여사

My Mom, Jungsuk and Mrs. Cha

한국

운(雲)프로젝트 그룹

5월 2일(월)~4일(수)

월 19:30, 20:00

20:30, 21:00

화 18:00, 18:30

19:00, 19:30

수 19:00, 19:30

20:00, 20:30

경성대 예노소극장

30분

12세 이상

Korea

Un Project Group

May 2nd (Mon) 19:30, 20:00

20:30, 21:00

3rd (Tue) 18:00, 18:30

19:00, 19:30

4th (Wed) 19:00, 19:30

20:00, 20:30

Yeno Hall,

Kyungsung University

30MIN

Rated PG - 11



객석이 무대가 되고, 관객이 극의 일부가 되는 “관객 참여형 로드플레이” 형식의 연극.
우리의 엄마, 엄마의 엄마, 언젠가는 엄마가 될 딸들에 관한 이야기!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 온 오치운 연출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였던 <우리엄마, 정숙이, 차여사>는 ‘관객 참여형 로드플레이’라는 형식으로 공연된다.

공연 시작 전 관객들에게 주인공 딸의 역할을 부여할 소품들을 제공하고, 공연 중 배우와 함께 공연을 진행하며 딸의 시선과 엄마의 시선을 만나게 된다. ‘연극과 공연은 통과의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의 나와는 또 다른 모습의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공연 도중 제시한다. 또한 공연 도중 공간의 변형을 통하여 ‘바라보는 연극양식’에 지쳐있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한다.

※ 작품 <우리엄마, 정숙이, 차여사>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공연을 만들어가는 “관객참여형” 작품으로, 관객 1인이 30분 동안 참여하며 장면에 따라 공연을 함께 진행한다. 관객은 ‘차정숙’이라는 엄마의 딸로서 입장하며, 엄마는 말없이 집을 떠난 후 몇 년 만에 죽음을 안고 나타난다. 딸(관객)은 숨겨진 엄마의 인생을 찾아 떠나고, 공연장은 딸이 엄마를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연출 : 오치운 / 미술감독 : 김원태

출연 : 양지웅, 최은아, 박정민, 백선우, 김성훈, 이원정, 김윤호, 정원혁, 이종화, 이정은, 박다미, 박민아, 손남숙, 양효윤, 유하나

우리엄마, 정숙이, 차여사

My Mom, Jungsuk and Mrs. Cha

A participatory play that is built upon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 it tells the story of our mothers, mothers’ mothers, and daughters who will be mothers some day!

<My Mom, Jungsuk and Mrs. Cha> will keep audiences engaged by calling on them to be part of the performance! It is told through the eyes of the mother. However, the play speaks to the interconnectedness, not restricted by gender, that binds all people together one generation at a time.

Director : Oh Chioun / Art Director : Kim Wontae

Performer : Yang Jiwoong, Choi Euna, Park Jungmin, Baek Sunwoo, Kim Sunghoon, Lee Wonjung, Kim Lyunho, Jung Wonhyuk, Lee Jonghwa, Lee Jeungeun, Park Dami, Park Mina, Son Namsook, Yang Hyoyun, Yu Hana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 줄거리

10년 전 집을 나간 엄마로부터 어느 날 딸에게 편지가 배달된다. 편지의 내용은 “차정숙, 이 세상 행복하게 놀다간다” 였다. 딸이 10년 전 떠난 엄마를 찾으러 떠나면서 극이 시작된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학교대신 공장을 다녀야 했던 엄마, 같은 공장에서 만난 무능한 남편 때문에 이집 저집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던 엄마. 그런 엄마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나간 엄마. 약간은 세상물정 모르고 약간은 모자란 듯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엄마 차정숙을 따라 극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진행된다. 어느 날 부산역 앞에서 이름 없는 노숙자로 쓰러져간 엄마. **우리의 엄마 정숙이는 과연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까?**

■ Synopsis

One day, the daughter of Cha Jungsuk receives a letter from her mother 10 years after having been abandoned by her. The letter reads: "Cha Jungsuk, she did enjoy herself in this world." The story follows the mother, Cha Jungsuk into her daily life. In appearance, her life is outwardly simple and yet internally complicated. Betraying her age, she acts naive like a child. Despite the complications, she has faced in life and she appears emotionally trapped in a time that greatly precedes the present. This arrested development is displayed in her childlike whims and temperament. Realizing her lack of awareness, the audience must face the issue for her and ask : **Has she ever achieved her own dream?**



허기진 휴식

Starved Rest

한국

극단 몸골

5월 2일(월)~3일(화)
월~화 20:00

용천지랄소극장

60분
15세 이상

Korea

Theater MOMGGOL

May 2nd (Mon) 20:00
3rd (Tue) 20:00

Culture Alley
Yongcheon Jiral Theater

60MIN
Rated PG - 14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죽기 위한, 혹은 살기 위한 몸부림.

배우들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절망과 분투, 그리고 희망!

2009 서울아트마켓 PAMS Plus 및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지원 분야 선정 작품인 <허기진 휴식>은 역동적이고도 미학적인 신체적 움직임과 라이브로 비춰지는 영상이 어우러진 조용하지만 강렬한 신체극으로, 말의 언어를 걷어내고 몸짓의 언어를 통해 극적인 무대 미학으로 무대를 채운다.

남,녀 배우 2명으로 이루어지는 2인극으로, '자살'이라는 소재를 아주 일상적이고도 다양한 몸동작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아픔과 희망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서로 부대끼고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몸동작 하나하나에 메시지를 담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조용하지 않은 침묵, 더욱 강렬한 매력의 '신체극' <허기진 휴식>.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연극적 움직임과 안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몸짓은 관객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재미와 충격을 선사한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3일 (화) 20시 공연 후

연출 : 윤종연 / 프로듀서 : 신혜원 / 조명감독 : 허환 / 무대감독 : 노제현 / 음악 : 김형수 / 기술 : 혜영, 공상혁 / 영상작가 : 김수정
출연 : 민기, 김정은

허기진 휴식

Starved Rest

Struggling to live or die- despair, struggle and hope pour out from the actors.

A work of physical theater, <Starved Rest> was first staged in the summer of 2009, and featured as part of the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s PAMS Plus showcase.

<Starved Rest> is simultaneously calm and intense. Movements are crafted to be equal parts beautiful, poignant and provocative. <Starved Rest> doesn't communicate with verbal language, but with body language, molding a dramatic aesthetic on stage.

This is a two-person performance: one male and one female. The pains and hopes of the characters are manifested as a spectrum of movement, from routine daily actions to the contortions.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interfering with each other, the performers' movement has its own meaning.

Dynamic gestures, vacillating between dramatic movement and choreography, deliver a fresh perspective and impact the audience in a way you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 Q&A Session : May 3th (Tue) 20:00 After the performance

Director : Yoon Jongyeoun / Producer : Shin Hyewon / Lighting Director : Hur Hwan / Stage Director : Noh Jaehyun / Sound : Kim Hyungsoo
Technical Director : Hye-Young, Kong Sanghyuk / Image Writer: Kim Soojung
Performer : Minki, Kim Jeoungeun

■ 작품의도

고독, 외로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현대의 우리들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결국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타인과의 소통 속에 인정받고 기억되는 것이다. <허기진 휴식>은 이렇듯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정신없이 바빠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치유되지 못한 채 쌓이는 스트레스와 상처에 반비례하여 허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 놓고 표현할 수 있을까? <허기진 휴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다. 두 배우의 움직임을 통해 언어보다 더 강렬한 이미지와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관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 Motive

Though constantly in the mix of a bustling metropolis, loneliness is forever lurking around every corner. Individuals become awash in society's sea of nameless faces. We betray our needs and deny the needs of others. We give pain instead of love. The desire hiddenly remains to be accepted, remembered and shared with another. <Starved Rest> strives to express the loneliness of feeling farthest from the person right next to you. Sometimes that disconnect exists within ourselves, lost in a whirlwind of "to do" lists and deadlines. Ironically, the greater our needs, the less capable we are to articulate them. The subconscious is illuminated in <Starved Rest>. Refraining from all dialogue, the actors speak volumes with movement.



유혹

La Petite Mort

체코
Skutr

5월 4일(수)~5일(목)
수 19:30, 목 20:00
경성대학교 새빛뜰(연못가)
55분
19세 이상

the Czech Republic
Skutr

May 4th (Wed) 19:30
5th (Thu) 20:00
Seabitteul,
Kyungsung University
55MIN
Rated PG - 18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1

체코식 “한 여름밤의 꿈”! 남과 여, 결코 끝나지 않는 관계의 고리를 말한다.

눈을 떼 수 없는 그들의 은밀한 퍼포먼스와 무언극으로 만나는 매력적인 사랑의 유혹. 세 쌍의 연인들이 보여주는 사랑, 욕망, 미움, 체념! 남과 여, 이들의 결코 끝나지 않는 관계의 고리를 온 몸으로 그려낸다.

프랑스어로 'La Petite Mort'는 '작은 죽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은유적인 뜻으로 오르가즘을 'La Petite Mort' (작은 죽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연극은 전반적으로 섹시(?)하고 도발적이다.

남녀 간의 사랑과 질투, 다툼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작품 <La Petite Mort>의 실외 초연은 2008년 6월, 프라하의 Vyšehrad성에서, 실내 초연은 2008년 12월 프라하의 La Fabrika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체코 각지의 여러 페스티벌에서 공연되었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4일 (수) 19:30 공연 후

기술감독 : Michael Blaha / 감독 : Martin Kukucka, Lukas Trpisovsky

출연 : Jakub Gottwald, Adela Lastovkova Stodolova, Zuzana Stavna, Lenka Vagnerova, Petr Vancura, Petr Vrsek

유혹

La Petite Mort

<La Petite Mort> translates literally as "little death"; however, the phrase comes into performance more often as a metaphor for orgasm. Conversely, Adela Lastovkova Stodolova's dance production, <La Petite Mort> is the furthest thing from a Harlequin romance: it's a comedy.

The dancers' movements are memoir in motion from the anthology of first encounters- love, desire, sex, rejection- and how these experiences lead to a different kind of encounter: with ourselves.

Watching <La Petite Mort>, there is the out-loud laugh and quiet sign of relief. We are given the chance to revisit our own first taste of the "fruits of knowledge" with different senses and see it for the comedy of errors it truly is.

■ Q&A Session : May 4th (Wed) 19:30 After the performance

Technical Director : Michael Blaha / Director : Martin Kukuck, Lukas Trpisovsky

Performer : Jakub Gottwald, Adela Lastovkova Stodolova, Zuzana Stavna, Lenka Vagnerova, Petr Vancura, Petr Vrsek

■ 언론 보도

말이 필요 없는 시적(poetic) 신체극.
사랑에 질린 세 남자와 몸을 떠는 세 여자.
초저녁 촛불은 켜지고...

<La Petite Mort>는 끝없는 낭만적 추파와 거부의 연속이다.
잔디 밭 위에서 흠뻑 젖은 소녀들이 사나운 요정들처럼 춤을 추는데,
경쾌한 움직임 속에서 과감히 허벅지를 보이고
젖은 머리칼을 날리는 것이 인상적이다.

— Markéta Faustová, Tanení zóna, Autumn 2008

■ PRESS REVIEW

Poetic and highly physical theater that doesn't need any comments.
Three love-sick men, three tremulous women.
The light of candles and the night is young...

<La Petite Mort> is a never ending chain of romantic temptation, banter and rejection.
I have captured the last moments of thee vening in my memory.
Drenched girls are dancing on the grass like ferocious nymphs,
they move in springy moves,
confidently open their thighs and swing their wet hair.

— Markéta Faustová, Tanení zóna, Autumn 2008-



상하이 랩소디

A rhapsody of Shanghai Bund

중국

Zephyr International
Art & Culture Company

5월 5일(목)~6일(금)
목~금 20:00

경성대 예노소극장
90분
15세 이상

China

Zephyr International
Art & Culture Company

May 5th (Thu) 20:00
6th (Fri) 20:00

Yeno Hall,
Kyungsoong University
90MIN
Rated PG - 14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엇갈린 사랑의 랩소디!

나를 평생 사랑해 줄, 혹은 내가 평생 사랑할 사람에 관한 끝없는 고찰.

사랑은 타이밍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그 반대이거나... 변함 없이 사랑할 누군가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딜레마이다.

극 중 인물인 중국의 대표적인 차세대 작가 CHEN XIAOTUAN은 삶에 있어서 사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변함없이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1900년대 Shanghai Bund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복잡한 감정을 소설 속에 담는다. 이 극은 이 소설과 현실 속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무대 위에 풀어놓고 있다.

■ 관객과의 대화 : 5월 5일 (목) 20시 공연 후

제작 : Jenniffer Liu Lanjun / 연출 및 작가 : Zhou Ge, Li Sixiao
출연 : Wei Yucheng, Zhu Hu, Zou Jing, Li Sixiao, Gao Feng

상하이 랩소디

A rhapsody of Shanghai Bund

**Love takes timing. This is a rhapsody of twisted love!
I must take time to consider whom I will love forever,
and who will love me without end.**

Love is not as simple as it looks. When somebody loves you, you might not reciprocate. On the contrary, when you love somebody, that love may go unrequited. It is a dilemma to find somebody whom I will love and who will love me for the entirety of my life.

Born in the 1980s, writer Chen Xiaotuan, is a representative of the next generation. His work speaks of the difficulties in life and love. This is a mass trying to define love, seeking sincere love and struggling to maintain a constant love. Only complicating this search is the framework of love we've constructed from novels. Xiaotuan has incorporated the story of Shanghai Bund in the 1900s, a bustling international financial hub located in central Shanghai. This show plays out the complex emotions surrounding true love, differentiating love found between the pages and love out of the reality of everyday.

■ Q&A Session : May 5th (Thu) 20:00 After the performance

Producer : Jenniffer Liu Lanjun / Director & Playwriter : Zhou Ge, Li Sixiao
Performer : Wei Yucheng, Zhu Hu, Zou Jing, Li Sixiao, Gao Feng

■ 언론보도

〈상하이 랩소디 (A rhapsody of Shanghai Bund)〉는 사랑을 찾아 헤매는 정감이 가득한 희극이다. 극중 '진소단'은 80년대에 출생한 미스터리소설 작가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럴듯한 책 한 권 출판해보지 못했다. 그는 친구들과 술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일들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여배우 '교소운'을 만나게 된다. 우리와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먼 듯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야기는 현실생활과 책 속의 이야기들을 뛰어넘어 가볍고 다소 엉뚱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유발하고, 주인공 '소단'이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완벽한 사랑에 대한 생각을 숨겨둔 채, 실제 생활과도 같은 유머러스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무기력한 모습들을 표현한다. 관중에게 훌가분한 스트레스를 날려줌과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의 사랑에 대한 정의와 참신한 해석을 이해시킨다.

제작자의 말 :

11월 아주 특별한 달이다. 11일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 중국은 11월 11일을 '싱글의 날' 이라고 부른다) 이는 사람을 아주 우울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나는 친구들과 의논하여 그 날에 걸맞은 연극을 제작했다. 나의 요구는 간단했다. 첫 번째는 극장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볍게 웃으며 극장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극을 보는 관객들이 순수함과 열기를 느끼는 것이다. 변화한 도시의 삶 속에서 이미 사치품이 되어버린 것들을 무대 위에서 볼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상하이 랩소디 (A rhapsody of Shanghai Bund)〉를 보기 위해 극장에 오는 모든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공감을 얻을 바란다.

- 2010년 11월 1일 중국 언론매체 <凤凰网娱乐>에 소개된 글 중에서

■ PRESS REVIEW

《惊声好笑》，一部寻找爱情与担当的情感喜剧。陈小团是一个80后的悬疑小说作家，但是从来也没出版过一本像样的书，他和一帮朋友在酒吧消磨生命的时候认识了乔晓云，一位事业不太如意的女演员，一段若即若离的故事就此开始。故事在现实生活与书中故事之间穿越，在轻松荒诞的氛围中营造紧张气氛中，隐藏着小团自己内心中对完美爱情的理解，在现实世界看似调侃幽默的气氛中却表现出现实世界人们对感情的无奈与无力是从，让观众在轻松减压的同时去从新理解现代社会里对爱情的定义与全新诠释。

制作人的话：

11月是一个特殊的月份，因为有个11号，这是一串让人颓废的数字，于是我和朋友们商量做一部戏来应景。我的要求很简单，一是它要好玩，要让每一个走进剧场的人都能感受到轻松、快乐，以此洗掉剧场外的一切尘嚣；二是它要有很纯的感情，那种在繁华都市现实生活中早已经成为奢侈品的东西，我希望能舞台上看见它，三是我希望这部戏里的感情是有血性、有担当的。所以，我们做了《惊声好笑》这部戏，希望每个走进剧场的人都能小有收获。

- 2010年11月01日 <凤凰网娱乐> 中

